

#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7월 8일 개장... 손님맞이 분주

### 편의시설 정비·안전시설 점검 등 준비...8월 27일까지

### “입장료·주차비無·야영장 이용 자유로워 많은 사람 찾아”

보성군은 오는 7월 8일부터 울포솔밭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울포솔밭해수욕장은 맑은 바닷물과 소나무 숲, 은빛 모래 등을 즐길 수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가까운 바다로 많은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울포해수욕장센터, 해수욕장 인근에는 울포해수욕장센터를 비롯해 회천수산물위판장, 보성비봉공룡공원, 비봉마리나, 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갖춰져 있다. 또한,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차밭과 북채, 한국차박물관 등 관광 명소 진출이 용이하다.

특히, 보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울포해수욕장센터는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으며, 아쿠아토너, 놀이

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어, 야외 물놀이 후 목욕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즐겨 찾는 장소다. 또한, 다채로운 버스킹 등도 준비돼 있다.

군 관계자는 “울포솔밭해수욕장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고 야영장 이용도 자유로운 만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며 “쾌적한 휴양지를 위해 안전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시로 시설 점검, 방역 활동 등으로 피서지 안전과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 여수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 체결...동참 22곳

여수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7월 오전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역인재 채용 동참 기업이 22곳으로 늘었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생발전과 지역 내 청년실업 해소·인구증가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

고, 여수시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에게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이에 여수시는 산단 내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여수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며, 여수산단 지역민 우선채용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김현근 기자

## 고흥군,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모집...14일까지 접수

고흥군은 청년들에게 행정경험을 통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참가자를 이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정인턴은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되어 행정·현장·복지업무 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모집대상은 공고일(6월 5일) 기준 부모(고흥군 거주기간 5년 이상)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 만19세~25세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인원은 80여명으로 군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대상인원의 3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광양시, '리버마켓@섬진강'이 돌아온다

###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광양 선소터에서 20여 농부·작가 주축

지난 3월 개최된 제22회 광양문화축제에서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은 '리버마켓@섬진강'이 다시 돌아온다.

'제3회 리버마켓@섬진강'은 오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이틀간 광양 선소터(진월면 선소리 812-68)에서 광양을 중심으로 구례, 하동 등에서 온 20여 명의 농부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셀러가 감말랭이, 수제비누, 재첩국, 캔들 등 직접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고 젤리 만들기, 패브릭 공예(모시 체험) 등 체험 활동도 있을 예정이다.

리버마켓은 흔히 말하는 직거래장터나 '플리마켓(flea market)'과 달리 농부가 자신이 직접 기른 농작물이나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

을 가지고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매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마켓(free market)'이라는 운영 취지를 잘 살리는 마켓으로 유명하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광양시가 '문화교역도시'로서 리버마켓을 통해 광양을 비롯한 주변의 다양한 인접 도시 셀러들과 리버마켓을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시민이 리버마켓을 찾아 일상을 활기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버마켓@섬진강은 6월 이후 오는 7월, 8월, 10월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매일 '리버마켓@섬진강' 셀러를 위한 기본교육과 행사 참여를 위한 셀러 모집이 상시 진행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은 광양문화도시



센터 ☎ 061-761-07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현근 기자

## 순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순천시가 최근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공공구매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것으로 전남 지자체 중 순천시가 첫 감사패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시는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3.5%(2,650억원)로 전국평균 대비 7.8%, 광주전남 지역대비 2.1%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20.9%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15%)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기업과 신기술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시가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이다. 세계적으로 '전략적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략적 조달'이란 단순히 공공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총생산(GDP)의 10~20%인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구매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건 세계화, 분업화에 따라 공급망 최종 단계인 구매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원자재 가격폭등, 고물가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더욱 절실하며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 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